



주 제:	“믿음의 응답”	“대림 제 4 주일”	2007년 12월 23일
복음 묵상:	마태 1,18-24	이사 7,10-14	로마 1,1-7

오늘 복음은 처녀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가 하느님의 특별한 뜻이라는 것이 요셉에게 알려지고 고민하던 요셉이 마리아를 맞아들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젊은 청년 요셉이 사랑하던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에 혼비백산했다. 얼마나 요셉은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웠을까. 믿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를 느끼지는 않았을까. 당시의 율법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요셉이 얼마나 고민하고 힘든 결단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은 남모르게 조용히 파혼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 1,20-21).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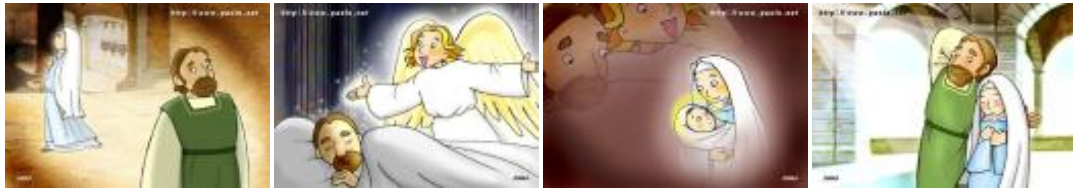
또한 마리아의 믿음의 응답은 우리가 깊이 평생 묵상해야 할 주제이다. 마리아는 천사의 자세한 말씀을 듣고 나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라고 했다. 이것은 초인적인 믿음과 완전한 신뢰이다. 철저한 순종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철저한 믿음의 자세이다. 고통스런 사건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닮아야 하는 자세인 것이다. 한 여인의 위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받은 역사는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서울 허영엽 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단원님들이 연습에 좀더 박차를 가해 좋은 성가로 아기 예수님을 맞자는 강력한 의견에 고개 숙여 감사 드리며 다음과 같이 연습시간을 연장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마지막 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 일요일 12/23은 오후 5시까지 연습시간을 연장합니다.
-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 가족 상봉을 위하여 12/20 부터 10 간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여행중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김효식 필립보 네리 형제님, 신제원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 가족 동반 여행을 떠나 24 일 밤에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행길에 주님 함께 하시길 빕니다.
- **조 율리안나 자매님** 약 2개월 반의 예정으로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여행중에 건강히 유쾌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2. 공지 사항 및 기도 요청

성심 성가대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2007년 12월 30일 (일) 교중 미사후
 장소: 성가 연습실.
 안건: 회계보고 및 신임 단장 선임의 건. 기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과혼하기로 작정하였다. ◦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1분 명상

“기도”

기 도



주님,
주님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시도록
저의 몸과 마음을 맡겨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끌어주셨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물렀사오니
온전히 주님 뜻대로 저를 인도하소서.

주님,
제 모든 것의 원천은 당신이오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소서.
아멘.